



# 광남일보



“진일 유림단체 ‘효자 표창문’ 남발” 심정섭 명예관장, 해남 용영환씨 등 2점 공개 6

함평 우수 농특산물 베트남 시장 개척 이상익 군수 “바이어 호평...동남아 전역 확대” 8

강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접근성 강화 인천국제공항 직행버스 신설...매일 1회 왕복 운행 10

KT전남북본부 “참진유공자 난청 치료 지원” 전남대병원·보훈부 협업...보청기 맞춤형 제작 14

주간 제790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음력 6월 21일)

## 광주 ‘AI’·전남 ‘에너지’...대한민국 성장판 연다

###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국정운영 계획 발표

### 제1호 국정과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확정 시, 인공지능·모빌리티 등 핵심정책 연계 탄력도, 의과대학 신설·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속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전남 핵심 현안이 다수 반영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전남 의과대학 신설,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지역의 숙원 과제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실행동력도 마련됐다.

#### ▶관련기사 3·4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민보고대회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제1호 국정 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지역 공약(7대)에서는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이 반영됐다. 따라서 광주의 AI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 산업을 결합해 호남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여기에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하는 ‘미래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이 포함돼 이재명 정부의 광주 지역공약인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국정 과제에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

#### 광주·전남 국정과제 7대 분야

광주
시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시대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공공의료 개선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
신재생 에너지 허브 육성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는 통합돌봄’도 반영돼 광주가 돌봄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표준이 되게 됐고,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는 영산강과 광주천 수변도시 활력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과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도 분야별 국정과제와 연계해 차질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에 광주의 공약이 녹아든 것은 광주시민의 염원과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정책적 지원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지역사회 모두가 원

팀이 돼 공약 실현에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국정 과제에 반영된 전남 주요 정책으로는 30여년 숙원사업인 ‘의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확정됐다.

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육성 정책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도모델이다. 전남도는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도 국정과제에 반영돼 전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국가산단과 에너지 기본소득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제시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인 5급 3특 균형발전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추동해나갈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출범한 특별자치제 총정규연합 모델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며 원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광역교통 등 시도간 SOC(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포함, 다양한 시안을 공동사무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오는 27일 강 시장과 김 지사가 합의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그동안 전남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짐을 확인했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들이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김건희,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문시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

선수제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복절 휴일로 15일자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전북 소비 촉진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전북으로 만든 요리를 시식하고 있다.

### “전남 전북 맛보세요” 도, 소비촉진 판촉행사

#### 국회사 시식·가공제품 홍보 등 전남산 품질·우수성 알리

전남도가 고수온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양식 어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고, 국내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북 소비촉진 판촉행사’를 개최하며 전남산 전북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전남도는 최근 고수온 피해와 국내 경기침체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전북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13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특별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전북 특별 판촉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원석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서상석·전현희 최고위원, 최민희 과방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지원·손명수 국회의원, 김병호 대통령실 정부비서관, 신우철 안도군수, 관련 지자체장, 수협중앙회

양회,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전북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는 전북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시식회, 활전복과 전북 가공제품 홍보, 온·오프라인 할인판매 등 다양한 판촉행사가 이뤄져 전남 전북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활전복 위주의 시식에서 벗어나 전복꼬치·전복물회·전복비빔밥 등 다채로운 전북 활용 메뉴를 선보였고, 전복어묵·전복차우더 등 가공제품을 홍보해 전북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 길을 제시했다.

전북계란말이김밥, 전복비빔밥 등 전복을 재료로 활용한 간편 도시락은 행사에 참가한 시민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프랜차이즈 기업인 양생김밥과 협업해 안도산 전복을 활용한 4종 메뉴를 개발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대대적 제품 홍보활동을 펼쳤다. 현장 할인판매는 수협중앙회가 지역 생산어로부터 직접 매입해 확보한 물량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이뤄졌으며, 현장 구입이 어려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할인판매도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전북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지역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전남도 수산물 소비의 신호탄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복뿐 아니라 낙지, 김, 해조류, 우럭 등 주력 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도내 수산자원 보호 및 가공·유통·수출의 전주기 체계 정비와 함께, 민간기업·프랜차이즈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소비 접점을 넓히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정원 기자 holbul@gwangnam.co.kr

##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재미있게 배운다!

# 역사 문화 관광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

어렵게 느껴지는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안내판으로 제작하여 우리지역에 있는 역사·문화·관광명소를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로 쉽고 빠르고 즐겁게!**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나레이션된 영상을 QR코드로 만화게시판에 설치하여, 역사·문화관광지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내방객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웹툰 등 교육·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국문QR 영문QR

QR코드를 찍으시면 유튜브를 통해 만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story01920@naver.com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 30-0807589

• 미니버스 흥겨운 이야기 (설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주남야유)

문의 STORY BRIDGE 스토리브릿지 062-521-7779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story01920@naver.com